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유통망'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Network'

2021. 09. 08 -
2021. 11. 21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서울시립미술관 주최로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행사로, 전시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미디어·도시 사이의 연결고리를 탐색합니다. 2000년 제1회 행사 이후로 지난 20년간 600명이 넘는 국내외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여 왔고, 최대 18만 명에 이르는 관객이 비엔날레를 찾았습니다.

2021년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열린 첫 번째 비엔날레는 도시 전역의 옥외전광판에 영상작품을 선보이며 기술 발전과 함께 진화해 가는 서울의 모습을 탐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서는 이러한 비엔날레의 출발점을 재해석하면서, 나아가 지난 20년간 문화의 세계적인 거점이 된 서울과 급변한 미디어 환경을 조명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열리는 전시를 비롯해 독립미술공간, 카페, 서점, 전광판, 지하철 광고판, 스마트폰 등 100여 곳이 넘는 미디어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자 합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6 전시 전경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유통망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Network

행사명 : 미디어_시티 서울 >>>



행사명 : SeMA 비엔날레 >>>



행사명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One Escape at a Time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주제는 ‘하루하루 탈출한다’입니다. 판타지와 히어로물 등 대중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현실로부터 탈출하는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일상 속에서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원동력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대중문화와 ‘도피주의(escapism)’의 역동적인 관계에 주목하여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동시대 대중문화와 미술의 힘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1년 9월 8일 - 11월 21일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과 서울시 전역의 '유통망'
주최 : 서울시립미술관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유통망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Network



Pauline Boudry & Renate Lorenz, *Moving Backwards*, 2019



Chihoi, *Carousel*, 2014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유동망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Network



Pilvi Takala, *If your heart wants it (remix)*, 2020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유동망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Network



Li Liao, *不知道*, 2020



DIS, *A Good Crisis*, 2018



Cici Wu, *Unfinished Return of Yu Man Hon*, 2019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 및 비엔날레팀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Artistic Director and Biennale Team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
융 마(Yung Ma)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첫 외국인 감독 융 마(Yung Ma)는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의 동시대 미술 및 전망분과의 큐레이터, 홍콩의 시각문화미술관인 [M+]의 초기 주요 큐레토리얼팀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베니스비엔날레의 홍콩 파빌리온을 두 차례 공동기획하기도 했습니다.

비엔날레 프로그램팀

이지원 - 큐레이터
클라우디아 페스타나 - 큐레이터
유지원 -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장해림 -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이문석 - 프로젝트 매니저

(주)얼트씨 - 운영대행사

김동훈 실장
민지원 팀장
이용희 팀장

유통망은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프로그램팀과 비엔날레 공식 운영대행사인 (주)얼트씨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의 문화 및 여가시설과 비엔날레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문화 서울의 새로운 활로가 개척되기를 희망합니다.

echoes@mediacityseoul.kr
T. 02-2124-8978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유통망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Network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초대의 글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Invitation Letter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유통망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Network

안녕하세요.

저는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예술감독 융 마라고 합니다.
서면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동시대 미술행사 중 하나로서, 올해 열한 번째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비엔날레를 기획하면서,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비엔날레의 기반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대도시 서울만의 특징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과 문화지형도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대표님께 제안드리고자 하는 '유통망'은 바로 이러한 비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유통망'은 이번 비엔날레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국내외 작가들의 목소리를 도시 서울의 한가운데에서 만난다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매체를 타고 문화콘텐츠들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오늘날, 현대미술 역시 도심 곳곳으로 퍼져 나가는 가능성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주목한 장소는 귀하의 공간처럼, 문화 경험을 찾아 도시를 여행하는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카페, 서점, 상점, 바와 클럽, 복합문화공간 등의 문화거점들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의 탈출구로서 문화적 활력을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거점들이야말로, 전 세계 현대미술가들의 언어와 아이디어를 시민의 일상과 연결하는 가교이자 매개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예술감독으로서, 서울 전역에 문화적인 반향을 일으킬 '유통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술감독 융 마 올림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유통망'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Network'

'유통망'은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서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미술관을 넘어 서울시 전역을 아우르는 현대미술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시민과 미술의 만남을 다변화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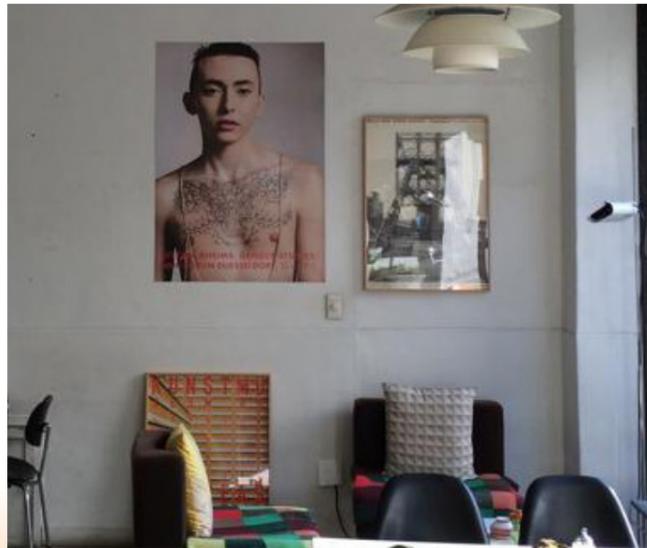
동네 카페 벽에 걸린 포스터부터 행인의 시선을 끄는 옥외전광판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들의 메시지를 서울 전역에 유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비엔날레 기획팀은 '유통망'을 통해 현대도시의 맥락 속에서 미술이 존재하는 방법을 실험하고, 복잡한 도시 환경 속에서 미술이 이야기하는 만남에 주목합니다.

물리적·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미술관을 직접 찾지 못하는 시민도 생활 환경 속에서 현대미술작가들의 메시지를 만남으로써 서울시민 일상 속에 작은 '탈출'의 계기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서울 각지에서 비엔날레와 문화거점이 시민과 예술이 하나되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미디어캔버스 사례 - Chris O'Shea, *Hand from Above* (2009)
on BBC Big Screen in 2010, Plymouth, 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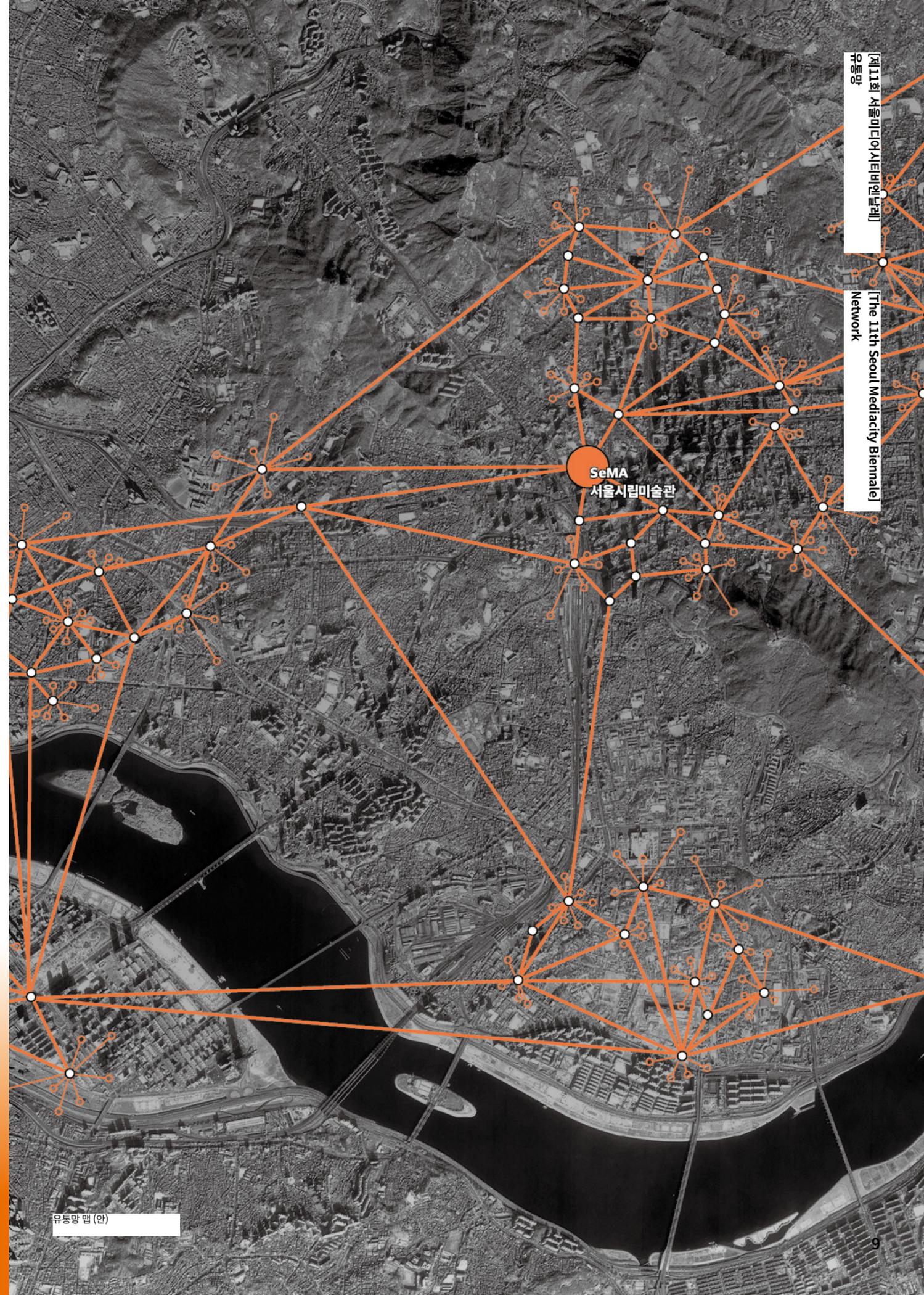
문화예술 공간 사례



지하철 공간사례 - JR, *Voyage avec d'autres* (2018)
at Paris Metro in 2018-2019, Paris, France (Photo: RATP - Denis Sutton)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유통망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Network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유통망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Network

유통망 맵 (안)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유통망' 참여 공간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Spaces Participating in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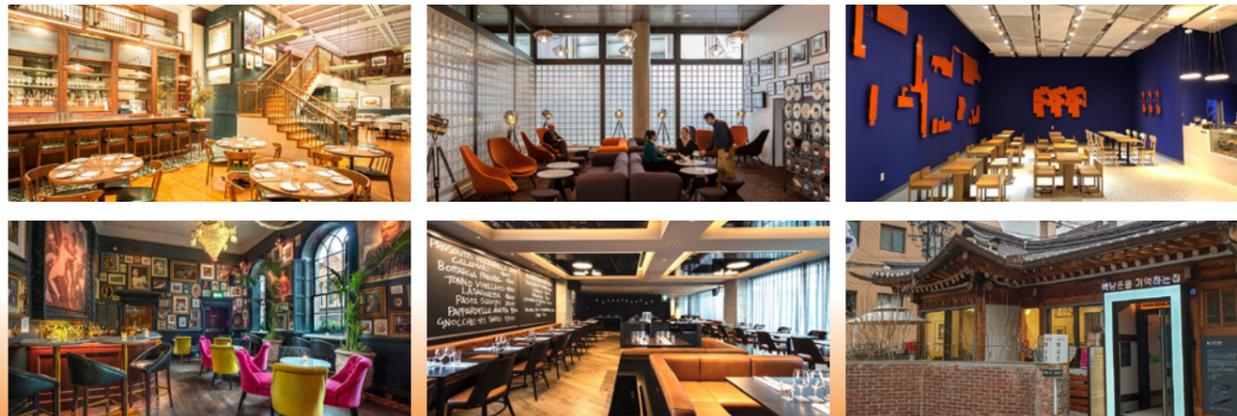
A. 서울시 문화예술기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관 등과 더불어 서울문화재단 산하의 예술공간
>> 콘텐츠 : 참여공간 자체 프로그램, 참여작가 작품 상영, 작품전시, 교육프로그램



B. 서울시 문화거점

서울시 소재의 서점, 카페, 식당, 펍, 복합문화공간 등의 문화 및 여가시설 100여 개소
>> 콘텐츠 : 참여공간 자체 프로그램, 참여작가 작품 상영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유통망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Network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유통망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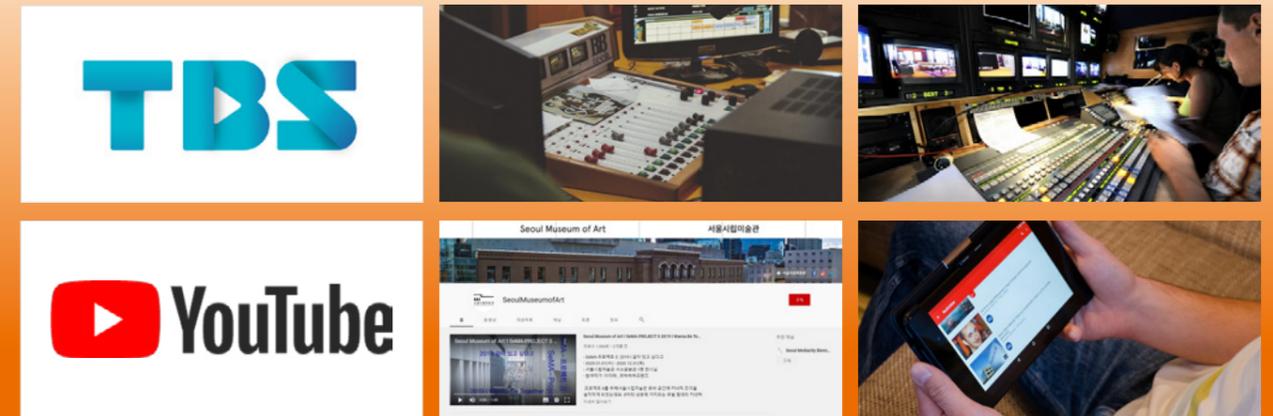
C. 전광판 및 홍보매체

서울시 소재 옥외전광판(시민게시판, 아리수 전광판,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등), 지하철 역사 미디어 보드, 삼성역 K-pop 스퀘어 미디어 전광판 등
>> 콘텐츠 : 참여작가 작품 상영



D. 온/오프라인 미디어

방송매체, 유튜브 등
>> 콘텐츠 : 참여작가 작품 상영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유통망' 협력 제안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Network'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주최하는 서울시 대표 문화 행사입니다.
특히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주력 사업인 '유통망'은 서울시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미술과 더불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예술을 통해 매개된 네트워크 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유통망' 참여하기

국내외 우수 참여작가 미술작품 기반 콘텐츠 비치	콘텐츠 유형 : 포스터, 영상, 음원 등 콘텐츠 내용 : 포스터 및 작품 이미지, 영상작품(20초 내외), 음원(음악 또는 내레이션) 등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뉴스레터 비치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관련 소식들을 담아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 발간 (예정)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참여인증마크 부착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유통망' 공식 참여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방문객 유도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유통망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Network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유통망

[The 11th Seoul Mediacity Biennale]
Network

'유통망' 참여 특전

네트워크 맵을 통한 상호명 및 위치 홍보	'유통망'의 온오프라인 지도 상에 위치정보 게시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뉴스레터 5만 부 이상 배포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공식 웹사이트 및 서울시 운영 SNS, 웹 플랫폼 활용
SNS 해시태그 이벤트 홍보	해시태그 이벤트 등 서울시 및 비엔날레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 진행 서울시립미술관 계정(12만 팔로워) 등을 통한 '유통망' 홍보
+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개막 행사 초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굿즈 제공	

프로젝트 추진일정 (예정)

2021년 4월 - 5월	2021년 6월	2021년 7월 - 11월	2021년 12월
-	-	-	-
사업장 섭외 및 협의진행 미술콘텐츠 비치방식 협의	미술콘텐츠 비치 사전준비 미술콘텐츠 운송 및 설치	뉴스레터 발간 및 비치 미술콘텐츠 비치 및 운영 네트워크 온오프라인 홍보	행사종료 및 미술콘텐츠 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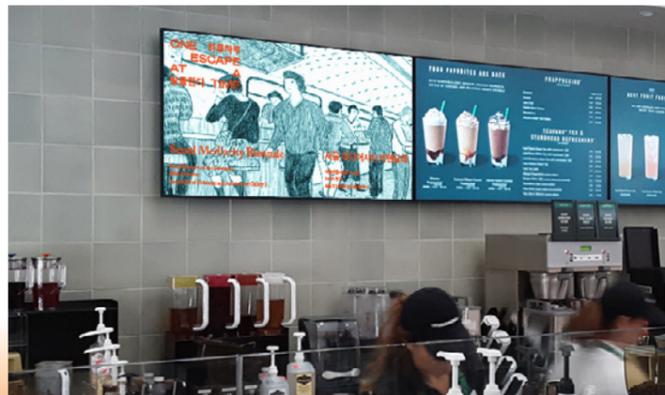
미술콘텐츠 비치 예시



포스터 비치 (안)



작품이미지 비치 (안)



작품 영상 상영 (안)



참여인증마크 부착 (안)

FAQ

Q. 어떤 공간을 '유통망'에 초청하나요?

A. '유통망'은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전시장인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서울시 중구 소재) 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양한 장소들을 연결하여, 예술작품의 메시지가 반향을 일으키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전시장 부근의 사업장은 물론 서울의 주요 문화 거점의 공간들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특별한 예술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Q. 사업장에 무엇을 어떻게 비치하나요?

A. '유통망'에 참여하시면 사업장에 세 가지를 비치하게 됩니다. 우선, 비엔날레 출품작을 바탕으로 만든 포스터, 영상, 음원 등 다양한 형식과 콘텐츠 중, 대표님과 상의하여 1종을 골라 설치합니다. 둘째, 비엔날레의 소식을 담아 총 5회 발간되는 뉴스레터를 비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통망'에 참여하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공식 참여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방문객을 유도합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참여작가들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인정받는 현대미술 작가들입니다. 이들이 '유통망'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콘텐츠들은 사업장 내 문화적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한편, 새로운 영감과 신선한 관점으로 고객분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Q. 사업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A. 비치할 콘텐츠의 제작, 운송, 설치와 철수는 모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진행합니다.

Q. 어떤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A.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서울 및 국내외 1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찾는 글로벌 문화 행사입니다. '유통망'에 참여하시면, 상호 및 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서울시립미술관 보유 오픈프라인 플랫폼과 홍보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시 보유 SNS 계정을 통한 사업장 홍보 및 해시태그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비치하실 미술콘텐츠는 서울 시내 옥외전광판, 교통수단 광고 등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바이럴 마케팅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T. 02-2124-8978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소문동)
서울시립미술관 비엔날레팀